

중소기업, 화학제품 생산 감소

5월 중소 제조업 생산지수 하락 ... 판매 부진에 원료가격 부담

5월 중소 제조기업의 화학물질·화학제품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중소기업 307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월 중소 제조업 생산지수는 117.9로 전월 대비 1.2%p 하락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41.6% 상승한 것을 비롯해 전기장비 39.8%, 자동차·트레일러 39.3% 각각 올라갔다.

의료용 물질·의약품은 8.3%, 화학물질·화학제품 생산지수는 4.7% 하락해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자금사정도 다소 나빠졌다. 자금사정이 양호한 곳(6.3%)과 곤란한 곳(29.3%)의 격차는 22.3%p로 0.5%p 더 벌어졌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상위 업종은 가죽·가방·신발(67.2%), 인쇄·기록매체복제업(4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34.6%), 의복·의복 액세서리·모피 제품(33.7%) 등이었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이유로는 판매 부진(38.0%), 판매대금 회수 부진(28.6%), 원자재 가격 상승(21.5%), 영업이익 감소(10.4%) 등의 순으로 꼽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28>